사회복지학의 정체성

이 혜 경(연세대 사회복지학과)

I. 머리말

이글의 목적은 해방후 고등교육기관에 학과가 개설된 이래 나름대로 한국 사회과학의 한 분야로서 뿌리를 내려온 사회복지학의 학문으로서의 좌표를 정리해보려는데 있다. 이글은 한국사회복지학의 과거를 반성한다든가 변명하려는 것이 아니라 사회복지학의 정체성 확립에 기초가 된다고 생각되는 몇가지 쟁점을 정리해봄으로써, 한국 사회복지학의 본질의 규명과 앞으로 나아갈 방향 및 가능성을 탐색하는데 촛점을 맞추고 있다.

이글에서 사회복지학은 "사회복지"라는 사회현상을 연구대상으로하는 학문분야로 규정하며, 정체성이란 타자로부터의 분리와 자신의 내적 일관성 내지 일치성을 말한다. 사회복지학의 정체성이란 결국 사회복지학이 다른 학문으로 부터 무엇으로 얼마나 구별되는가, 학문구성요소들간에 얼마나 유기적인 일관성과 일치성이 존재하는가하는 학문의 외연과 구조에관한 두개의 질문과 그외에 응용학문으로서 얼마나 과학성과 실천성의 균형을 가지고있으며, 또 하나 외국으로부터 수입된 학문이라고 볼때, 얼마나 문화적으로 토착화되었느냐 하는 질문으로 집약될수있다. 물론 이네개의 쟁점들은 모두 밀접하게 상호연결되어있으며, 궁극적으로는 한국사회복지학의 역사적 특수성과 상호작용하게된다. 사회복지학의 정체성은 그것이 속해있는 사회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역사적 맥락과 상호작용하지 않을수 없으며, 동시에 상당부분 사회복지 실천가들과 연구자들에의해 형성되는 것이다.

다음절에서는 한국사회복지학의 도입과 전개의 역사적 특수성을 미국, 영국, 일본의 경험을 준거로하여 살펴본다. 사회복지학의 정체성과 관련된 쟁점의 분석과 진단은 한국사회복지학의 역사적 특수성의 이해에 기초하지 않으면 않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제3절에서 4개의 쟁점을 차례로 정리하여 본다.

II. 한국 사회복지학의 역사적 특수성

1.사회사업학의 도입과 역사적 타이밍

한국에서 학문으로서의 사회복지학의 시작은 역시 1947년 이화여자대학에 기독교 사회사업학과의 설립을 기점으로삼아야 할것이다. 당시 한국사회에서 전문직으로서의 사회사업이나 학문으로서의 사회사업을 이해하는 사람은 많지 않았다. 그

후 1953년 동란 종결직전 중앙신학교에 당시 YMCA 연맹 후원으로 사회사업학과가 설립되고, 1958년에 한국그리스도신학교와 서울대학교 에 사회사업학과가 설치되었다. 서울대학교를 제외하고는 기독교계 사립대학들이었으며, 국립인 서울대학의 경우도 첫교수요원의 훈련은 미국의 對韓國 원조 프로그램의 일부로 이루어졌다.[1)]

그러나 50년대는 고사하고 60년대 초 까지도 한국사회의 사회문제는 현대 산업자본주의의 산물로서가 아니라, 주로 식민수탈과 분단, 전쟁과같은 민족적, 역사적 재앙의 산물로 이해되고있었다. 빈곤은 사회적 부적응의 문제라든가 자본주의체제의 문제로 이해하는 사람은 드물었다. 1947년 제헌헌법이 국민의 생존권을 명시하였다하나, 그것은 선언적인 목표에 불과했고, 국가의 힘으로 당시의 보편적인 빈곤이 해결되리라 기대할 형편이 아니었다. 국가부문의 사회복지가 제도적 실체를 형성하지 못하고 있을 뿐 아니라, 전통적인 가족의 기능을 대체하는 사회복지 서비스의 필요성이 아직 일반화되지 못하고 있을 때, 이미 서울대학을 비롯한 한국의 유수대학들은 사회사업학과를 설치하고 사회사업학을 교수하고 연구하고있었던 것이다.

한국사회복지학의 역사적 특수성은 바로 여기서 시작된다. 이 도입단계에서 벌써 선진국들, 미국이나 영국, 일본의 경험과는 구별되는 중요한 상이성이 들어난다. 첫째, 한국의 사회복지학은 사회복지학의 연구대상인 사회복지제도나 사회복지실천의 현장이 형성되기 전에 학문으로서 먼저 소개되었다. 다시 말해서 산업자본주의가 진전되어 사회복지라는 대안의 필요성이 인식되기 전에 사회복지가 학문으로서 도입되었다는 것이다. 둘째, 한국의 사회복지학은 사회정책이나 사회행정으로서가 아니라 미국의 전문사회사업으로서 처음 소개되었다는 점도 향후 사회복지학의 발달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있다. 그리고 셋째, 한국사회에서 학문의 본산이라 할수있는 국립 서울대학교가 일찌기 사회사업학을 미래지향적이고 실용주의적인 학문영역으로 인정하여 일찌기 학과를 설치하였다는 점이다.

미국이나 영국, 그리고 후발 일본에서조차도 대학이 사회사업이나 사회복지, 사회행정, 사회정책을 학문영역으로 인정되기까지 상당한 실천실험과 연구, 운동의 경험을 가지고 있었으며, 산업자본주의의 진행으로보면 Rostow가 말하는 성숙단계를 前後해서였다.

미국에서는 New York C.O.S.가 1898년 처음 여름훈련학교를 시작하고, 1차대전 후에야 New York School of Philanthropy가 Columbia 대학에 School of Social Work으로 소속되게 되었다. 훈련학교들이 대학에 소속됨으로써 비로소 사회사업이 학문세계로의 진입이 이루어진 것이었다. 대공황까지 미국에서는 사회문제에

1.6.25이후 한국은 엄청난 규모의 응급구호를 필요로하게 되었으며, 실제로 이 응급구호의 재정은 상당부분 미국의 원조에 의존하고있었다. 이미 전문사회사업 교육을 상당히 발전시키고 있던 미국으로서는 무작정 구호와 원조보다는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문제해결의 기술을 가진 전문가를 양성하는 전문사회사업 교육제도를 정착시키는 것이 장기적으로 더 바람직한 원조방법이라고 믿었을 것이다.

대한 대안으로서 민간부문의 자선활동이 주도하고 있었다. 20세기초의 Progressive Movement가 실패로 끝나고 사회보험운동도 실패로 끝났으며, C.O.S.의 전통을 계승한 사회사업의 전문화, 과학화는 시대적 지지를 받고있었다.

영국에서는 19세기 후반이후 영국사회개혁의 역사를 주도해온 Fabian들이 London School of Economics에 사회행정학과를 설치한것이 1913년, 10년전에 London C.O.S.가 세운 London School of Sociology가 이때 사회행정학과로 흡수되었다. 페비안들은 사회행정과 사회사업을 구분하고 국가의 사회보험, 실업관리, 주택, 보건행정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한편, 사회사업의 기술적이고 개별적인 접근을 경시하고 상대적인 비중을 약화시켰다.

일본의 경우 역시 조직적이고 과학적인 사회사업의 개념이 등장하고 대학수준에서 사회사업 연구가 시작된것은 1차대전후의 일이었다. 1918년 종교대학(후에 대정대학)에 사회사업 연구실이 설립되고 1921년에 본과에 사회사업강좌가 개설되었다. 이시기에 일본 사회사업 연구를 주도한 이들은 주로 미국의 영향을 받아서, New York School of Philanthropy에 참석하는가하면, Edward Devine이나 Mary Richmond와 직접 만나고, 개별사회사업의 개념을 상세히 소개하였다. 그러나, 미국 사회사업이 전제한 자유주의적 휴매니즘은 명치건국이념이던 국가유기체설이나 일본관료들이 도입한 독일 사회정책이념과는 거리가 먼것이었다. 일본에는 사립대학들을 중심으로 소개된 미국식 사회사업보다 훨씬 일찌기 독일의 사회보험의 아이디어가 관료들에의하여 소개되어 있었으며, 1895년에 이미 독일 사회정책학회를 모방한 사회정책학회가 설립되어있었다. 1차대전후 일본이 경험한 극심한 불황과 일찌기 볼수 없었던 대규모 민중봉기, 데모, 파업은 당시 일본으로하여금 자유주의적인 사회사업보다는 사회정책으로 무장된 군국주의를 선택하게하였다.

미국의 사회사업학은 영국식의 사회행정의 전통이 미미한 가운데 COS의 전통을 계승 발전시켰으나, 영국은 사회행정의 학문적 대두가 COS의 전통을 흡수해버린 경우이며, 일본 역시 미국식 사회사업학은 독일식 사회정책학의 전통에 압도되었거나 분리를 경험한 경우라 할수 있다. 한국의 사회복지학은 사회행정학의 전통도, 사회정책학의 전통도, 더구나 COS의 전통도 없이 미국식 사회사업학으로 탄생하였다. 그러나 세개의 선진국 모두에서 대학의 대명사라할수있는 대표적인 대학들, 예컨대 미국의 하바드, 예일, 영국의 옥스포드, 케임브리지, 일본의 동경대학을 포함한 국립대학들이 사회복지학부나 사회사업학부를 두고 앉고있는것과는 대조적으로, 한국은 서울대학을 비롯한 국립대학들과 사립명문 종합대학들이 속속 사회사업학과를 설치하게된다.

2. 사회복지학으로의 전환과 그 배경

이렇게 미국 사회사업학의 단순이식으로 시작된 초기 한국사회복지학은 첫째,한국 산업자본주의의 심화, 둘째, 한국사회과학 풍토의 변화, 그리고 셋째,미국사회사

업학의 변용과 계속 상호작용하며, 신속한 변신을 이루게된다. 1960년대초부터 시작된 수출주도형 산업화는 미증유의 경제성장을 가져왔고, 1970년대부터는 고도성장이 지속되는 가운데 국가주도형 산업화의 부정적인 결과들이 노출되기 시작했다. 도시와 농촌의 격차,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불균형이 심화되고, 노사분규가 숫적으로 늘뿐아니라 극단적인 대규모형태로 변화하였다. 그만큼 한국의 산업자본주의가 본격화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였다. 1970년대 이후 한국사회가 당면한 문제들은 본질적으로 구조적이고 체제적인 성격의 것으로 이해되었다. 한국사회는 한국의 사회복지라는 제도적, 정책적 틀이 구체적으로 요구되는 단계에 이른것이다. 종래의 미국 사회사업학처럼 빈곤이 개인의 성격이나 도덕성의 결함에 기인하는것으로 보기는 어려웠다. 급변하는 한국사회의 구조적인 문제들이 개별적인 사회화와 재사회화를 기본 원칙으로하는 전문사회사업 기술로 대처될수 있는가라는 의문이 대두되지 않을수없었다.

이러한 문제제기는 이미 60년대 중반이래, 미국사회사업을 모방,수입한 아시아 각국이 종래의 casework 중심의 미국사회사업학의 현실적용성을 재검토하게하는 공동노력이 시도되면서부터 한국사회사업학 내부에서 심각히 검토되어오고 있었다. 이렇게 아시아국가들이 미국 사회사업학 모방의 한계를 깨닫기시작할때, 한국은 고도경제성장이 초래한 구조적인 문제들에 부딪치게 된것이다. 당시 아시아지역에서의 사회사업 토착화 잇슈는 인권운동이 불붙기 시작한 1950년대 말부터 시작된 미국 사회사업학의 변화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었다. 케네디 죤슨 민주당 행정부의 개혁정책은 종래의 casework 중심의 사회사업학의 반성을 불러일으켰으며, 특히 오래동안 잊혀지고있던 거시적 접근, 사회개혁과 사회변화를 위한 사회사업가들의 역할을 다시 강조하게되었다. 미국사회사업학은 더 많은 사회과학개념을 도입하고, 관리와 계획기술을 개발하고, 사회사업학의 하위전공으로 직접서비스와 간접서비스, 혹은 미시적접근과 거시적접근이 분리되게 되었다. 미국 사회사업학의 이러한 변화는 사회사업의 토착화를 위한 아시아지역 공동연구를 통해서 뿐아니라, 연구자의 공급과 현장 자체를 거의 전적으로 미국에 의존해오던 한국사회복지학에 일정한 시차를 두고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을수 없었다. 다시말해서 전문사회사업실천 모델의 대안으로서 거시적인 정책 접근모델을 기존의 사회사업학 내부로 적극 수용할수 있는 연구자, 교수진의 공급을 가능하게 했던 것이다.

동시에, 80년대이후 한국 사회과학계는 한국자본주의의 객관적인 조건을 탐구대상으로하는 이른바 정치경제학적인 패러다임이 강하게 파급되고있 었다. 미국 60년대의 민권운동이 종래의 사회사업학의 탈전문화를 요구했던 것처럼, 한국에서도 이들 진보적인 사회과학의 대두는 종래의 미국식 사회사업학의 보수적인 인식틀을 직접 간접으로 비판하기에 이른다. 이같은 진보적인 지식인들과 학생, 노동자의 연대가 확대되자 정부도 1970년대 중반을 기점으로, 사회구조적 긴장과 불안을 해결하기위하여 사회보험중심의 사회복지 제도의 도입에 착수하며, 소득보장부문의 제도의 정비가 진행되고, 1980년대에는 사회복지 서비스분야에서도 각종입

법의 도입과 개정이 이루어진다.

이 단계에서 한국의 사회사업학은 미국의 사회사업학이 1935년 사회보장법제정과 시행에 냉담했던것이나, 전후 일본의 사회사업학이 사회정책론과 궤를 달리하게 되는것과는 달리, 한국 사회복지제도의 구축을 싸안는 보다 포괄적인 사회복지학으로의 지평확대를 선택하였던 것이다. 이러한 선택이 가능했던것은 상당부분, 우리나라에는 영국의 페비안 사회주의나, 독일의 사회정책학회, 일본의 사회정책학회처럼 거시적인 복지정책에 대한 연구와 이념의 전통이 없었기 때문이다. 사회복지제도의 성격과 방향이라든지, 사회복지와 경제사회발전의 관계, 사회사업 전문직과 소득보장체계의 관계, 사회복지 하위체계의 구체적인 목표등에 관한 연구의 축적이 어디에서도 이루어지고있지 않았던것이다. 한국사회복지정책의 모형개발과 평가, 분석은 경제학, 정치학, 사회학, 행정학에서 구해지기도 하였지만, 그 어느 영역에서도 한국사회복지의 방향을 주도할만한 학문적 토대나 축적이 이루어지지 못하고있다. 그나마 전문사회사업 방법의 한국화의 고뇌의 경험과 미국의 간접서비스 트랙의 훈련을 받은 인력이 준비된 사회복지(사업)학 30년의 역사에 한국 사회복지의 제도적 모색의 과제와 기대가 걸려지게된것이다.

1980년대이래사회복지학으로의 개칭은 단순한 명칭변경이라기 보다, 한국사회가 사회복지학에 부여한 이중적 사명의 확인을 의미한다. 다시말해서 한국의 사회복지학은 미국의 실천 기술중심의 사회사업학이 아니라 한국사회복지제도의 비젼을 제시할수있는 보다 포괄적인 학문으로서의 사명을 부여받고있다고 할수있다. 그것은 사회복지학으로서는 다른나라에서 유례를 찾기 어려운 엄청난 기회이며 도전이다. 그것이 바로 후발 한국 社會史의 고유한 타이밍이 만들어낸 역사적 특수성이기도한 것이다.

한국의 사회복지학은 사회사업학으로서 수입되었지만, 약1세대후에는 사회복지학이라는 이름으로 사회행정, 사회정책, 그리고 사회사업을 포괄하는 초광역 학문으로의 영역확대를 이루었다. 이같이 다른나라에서 유례를 찾기 어려운 방대한 포괄범위는 한국사회복지학의 중요한 성취라 할수 있겠으나, 그러나 그것은 사회복지학의 단일학문으로서의정체성의 관점에서보면 오히려 균열의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음을 간과해서는 않될것이다.

III. 사회복지학의 정체성:

한국의 사회복지학은 역사적으로 특수한 타이밍 때문에, 영국의 사회행정, 미국의 사회사업, 일본의 사회정책 모두를 포괄하고 있다해도 과언이 아닐정도로 광범위한 연구영역을 얻게되었다. 이같은 연구영역의 확대는 빠른 속도의 대학 학과 증설로 뒷받침되었으며, 실제 연구인력도 크게 증가하였다.[2)]

2.1957년 창립된 한국사회사업학회가 1973년 재건될때 10개대학으로부터 참석한 총회인원이 23명이었다. 1993년 현재 46개 4년제대학이 사회복지학과를 설치하고있으며, 11개대

한편, 이시기에는 고도경제성장이 지속되고 이에따라 사회구조가 고도화되어 가면서, 국가주도의 사회보장체계 확립이 진행될뿐 아니라, 기능적 사회복지서비스에 대한 다양한 욕구가 표출되기 시작하였으며, 사회복지학에서도 이에 상응하는 세부전공의 전문화가 요구되게되었다. 80년대후반에는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사회복지 서비스 관련 법들이 정비되었으며, 사회복지학계에서는 전문영역별 연구회, 전문학회 활동의 두드러진 증가가 나타났다. 임상 사회사업연구회, 가족치료학회, 의료사회사업가협회, 정신의료사회사업학회, 영유아보육학회, 아동복지학회 등이 그 예들이다. 주로 임상분야의 전공세분화와 전문화가 활발하게 진행되었으며, 정책분야에서는 사회보장학회에 이어 사회정책학회가 설립되었다..이들 사회복지정책관련 학회들은 학제적인 성격이 강한 것이 특징인데 반하여, 임상분야의 전문학회들은 가족치료학회를 제외하고는 사회복지학회의 소학회적인 성격이 강하다 하겠다. 이러한 활발한 전문 학회활동은 사회복지학의 학문성과 전문성의 심화를 위해 절대 필요한 일임에 틀림없지만, 동시에 이같이 다양한 관심분야와 전문성의 정도의 차이를 한데 엮을수있는 구심점으로서 정체성확립의 문제가 제기되지 않을수 없었다.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사회복지학의 학문으로서의 정체성문제는 네개의 기본적인 쟁점을 축으로 논의한다. 첫째는 관련학문이나 타학문으로부터의 상대적인 독립성에 관한 논의이고, 둘째는 학문으로서의 사회복지학의 내적인 체계성과 일치성문제이다. 세째는 응용학문으로서 사회복지학의 과학성과 실천성에 관한 논의이고, 네째 쟁점은 그것의 문화적 토착성문제이다. 특히 외국에서 수입된 사회과학은 이식된 사회에서의 현실적합성 문제가 학문의 정체성에 중요한 변수가 된다. 물론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이 모든 질문들이 상호 밀접히 관련되어있다. 이 절에서는 이네개의 질문에 각각의 정답을 구하기보다 대안들의 논리를 검토해보고자한다.

1. 사회복지학의 외연: 종합과학성과 독립학문성

한국의 사회복지학은 그것의 연구대상영역은 충분히 넓게 확보하고있다. 실제 그 전영역을 학문적으로 얼마나 통솔하고있느냐와는 별개의 문제로, 주요 고등교육기관이나 연구기관에서 사회복지학을 단독분과학문분야로 인정하는 정향은 정착하고있다고 볼수있다. 다만, 연구방법이나 접근법에 있어서 사회복지학은 아직 단독학문으로서의 독립성은 취약하다. 학문으로서의 역사가 짧다는사실과 연구자들의 연구능력상의 한계가 물론 중요한 요인이지만, 그것은 상당부분 사회복지학의 종합과학적 속성에 기인한다. 사회복지학의 연구대상으로 예를 들어 사회복지

학에 석사, 8개대학에 박사과정이 설치되었으며, 학회 참석회원수가 적게는 400명에서 많게는 600명에 이르고있다. 종래의 사회사업학과들도 대개가 사회복지학과로 개칭하게 되었다.

제도는 정치, 경제, 가족, 종교등 모든 사회제도와 교차하며 기능적인 보완관계에 있으며, 본질적으로 간질적인 특성을 지니며, 사회복지학이 개발해야할 사회복지 서비스 방법론은 인간의 통합적 욕구에 촛점을 맞춘다. 사회복지학은 훨씬더 활발한 학제적 노력을 필요로하고있다. 사회학, 심리학, 경제학, 정치학, 역사학, 법학, 철학, 문화인류학, 통계학등 인접과학과의 교류와 상호침투는 사회복지학의 학문적 심화를 위해서 불가피하다. 이같은 종합과학성 때문에 사회복지학의 고유성은 무엇이냐 하는 질문이 제기되고 이에대한 반응도 다양하다. 사회복지학을 종합과학으로 인정하여 독립과학으로서의 가능성을 포기할것을 제안하기도하고, 독립과학으로의 발전가능성을 읽으며 그 방법을 찾으려 노력하기도하고, 아니면 어떤 타학문에의 종속을 제안하기도한다. 물론 세번째 대안은 오늘날의 한국의 사회복지학에는 적절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독일에서 사회정책이 사회학부에서 연구되고, 사회사업이 교육학부에서 연구되는가하면, 미국에서도 때로 공공정책 대학원에 소득보장 전공을 둔다거나, 사회사업 기술이 교육학과의 전공분야로 인정되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그것은 사회복지학의 한 부분을 타학문 영역에서 취급하는것이지, 한국에서와 같이 광범위한 연구영역을 포괄하는 사회복지학이 어느 특정 학문 울타리 안으로 들어가기는 어렵다. 그것은 정체성문제의 해결방안이라기보다 정체성 정립의 진단계로의 퇴행이다. 첫번째 대안은 사회복지학이 독립학문을 구성할수 없는 학제적 연구분야나 관심영역이라고 이해하고, 가능한한 많은 학문의 이론을 원용하게 하자는 것이다. 예컨대 사회복지학의 관심영역은 인간생활의 거의모든 영역이 포괄되므로 이것에 단독과학의 틀을 부여하려하는것은 지나친 야심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입장 역시 일리는 있으나 사회복지학의 외연적인 정체성의 취약성을 해결하는 방안은 못된다. 마지막으로, 종합과학성에도 불구하고 독립과학으로의 발전을 모색할 것을 제안할 수 있다. 현단계에서 한국의 사회복지학이 원하는 바가 있다면 그것은 종합과학성, 학제적 연구의 필요성을 충분히 인정하면서 독립과학으로서의 체계와 이론적 축적을 이루려는 것일것이다. 여기서 문제는 사회복지학의 내적인 체계의 확립 없이는 다른 기존의 단독학문들에 대하여 또하나의 단독학문으로서의 외연을 확립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충분한 공감을 얻을수 있으면서 또 충분히 차별화가 가능한 사회복지학의 공통된 사명을 명시하고, 그 사명을 공유하는 내부 전공분야를 몇개의 핵심분야, 혹은 핵심분야와 주변분야로 체계화할수 있어야한다.

2. 사회복지학의 내적인 체계: 임상론과 정책론

현시점에서 한국 사회복지학은 주로 내재적인 정체성의 문제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것 같다. 즉, 이제 학문의 영역이 확대되었으므로, 어떻게 사회사업과 사회정책, 사회행정을 하나의 학문으로 합성할것인가, 어떻게 전공(specialization)을 분류하여 어떻게 공통의 목표와 사명을 유지하면서 각 세부전공에서도 경쟁력을 확

보하게할 것인가, 어떤 개념으로 이 모든 실천과 접근방법을 묶어낼수 있는가, 사회복지학은 기본적으로 보수적이어야하는가, 등이 주된 질문이다. 사실상 이들이 사회복지학의 본질을 묻는 핵심을 묻는 질문들이다.

한국 사회복지학과 같이 그 영역이 크게 확대되었을 때, 내적인 체계화와 일관성의 추구는 우선 일관성있는 내부전공의 분류로부터 시작되어야한다. 미국의 사회사업학은 아동복지 학교복지등 분야별 분류시대로부터 고전적인 3대방법론의 시대, 직접서비스와 간접서비스의 분류시대를 거쳐오고있다. 최근에는 핵심과 주변영역을 구별할것인가, 아니면 Minihan과 Pincus나 Reid 처럼 몇개의 실천목표나 focus를 구별할것인가, Morris처럼 직접서비스와 간접서비스의 이분법으로 충분한 것인가, Specht처럼 재사회화, 발달적사회화, 상황적 사회화의 삼분법이 적절한것인가가 다시 논의되고있다.

이러한 미국에서의 논의는 당연히 미국 사회사업학을 text로 하는 것이었다. 미국의 사회사업학이 그 영역을 가장 확대시켰을때는 아마도 1960-70년대로서, 사회사업의 탈전문화가 논의되고, Social Work으로부터 Social Welfare로, Retail mentod 에서 Wholesale method로 무게중심이 옮겨질것이 요구되었으며, "사회복지"와 "사회사업"간의 nexus가 강조되었다.[3] 사실 이 두가지 접근의 상호보완성은 1905년 Mary Richmond 가 소매와 도매방법(Wholesale and Retail method)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이래, 1929년 Porter Lee는 원인과 기능(Cause and Function), Schwartz(1963)는 봉사와 운동(Service and Movement)으로 대비시켜 강조되어온바 있다. 60년대에 이르러 사회사업 전문직이 그동안 지나치게 치료,상담, 교육, 개별사회사업, 집단사회사업등 전문적 서비스 기능에만 촛점을 맞춰왔고, 사회복지제도의 변화와 유지에는 무관심해왔다는 것이 다시 지적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미국의 경우, 사회사업 실천에 있어서의 간접적 접근의 강조는 오래동안 지속되지는 못하였다. 1970년대이후 공화당이 집권하고, 반빈곤 프로그램에대한 열기가 가라앉으면서, 미국사회사업학의 무게중심은 다시 사회사업의 기술론쪽으로 옮겨지기 시작한다. 한편으로는 종래의 개별사회사업과 가족 및 집단사회사업을 포괄하는 임상사회사업이 대두되고, 전문직업적 자율성을 극대화한 임상사회사업의 개인실천(Private Practice)이 눈에띄게 증가하고, 다른한편으로는 가정부서비스, 노인가정 장보기, 차편제공등 구체적이지만 비전문적인 사회복지서비스가 공공프로그램으로 등장하기 시작하였다. 미국사회사업학의 임상경도현상은 70년대이후 미국사회의 지속적인 보수화경향과 맞물려서 사실상 미국사회업학과 전문직의 최대의 위기를 창출하고있는것으로 보인다. 다시말해서 미국 사회사업학은 임상실천 자격증을 가진 전문사회사업가의 훈련에 치중한 나머지, 여타분야에서의 전문사회사업의 역할을 축소시키고 동시에 정신보건분야에서 임상사회사업가는 사회

3.여기서 사회사업이란 요구가있는 사람을 위해 그들과 직접 대면을 통하여 돕는 전문활동을 말하고 사회복지란 계획, 정책분석, 프로그램평가, 행정등 복지분야 전체의 변화 유지에 촛점을 맞춘 간접서비스를 말한다.

사업가로서의 정체성보다는 치료사로서의 정체성을 강화해가고있는 것이다. 더구나 70년대이후 미국의 보수화 경향은 의료보험 적용이 되는 정신보건분야에서의 임상사회사업을 제외한 대부분의 현장에 사회사업가들보다 자원봉사자들의 투입이 증대되다. 사반세기 가까운 보수화경향과 두접근간의 균형부재가 이제 미국 사회사업이 그 영역을 축소시키고있는 것으로 보인다.

현재 한국 사회복지학의 분류는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이 임상과 정책의 분류이다. 물론 미국식의 직접서비스와 간접서비스라는 개념이 사용되기도하지만, 한국사회복지학을 포괄하는 이분법이라면 역시 유럽대륙의 사회행정이나 사회정책학의 전통까지를 포괄하는 정책론과 미국의 전문사회사업 기술론을 포괄하는 임상론이 보다 실체에 가까울것으로 보인다. 앞으로의 과제는 이두영역을 각각 보다 세련화시키는 작업과 두 영역을 연결시켜주며, 하나의 학문체계로 통합하는 개념틀의 개발이다. 동시에 전문영역을 더 세분화시키는 기준이나 개념틀을 개발하고, 그러한 구분을 하나의 학문체계로 다시 통합시킬수있는 이론체계가 개발되어야 할것이다. 그것이 구체적으로 어떤것이어야에관한 논의는 이글의 범위 밖으로한다.

3. 사회복지학의 이론성과 실천성

사회과학은 대개 실천성과 이론성의 양면을 가지고 있다. 어떤 학문의 실천성이란 어떻게(How)를 중심으로 실용성과 처방성, 기술성을 강조하는데 반하여, 이론성 혹은 과학성이란 왜(Why)를 중심으로 설명성, 인과성, 객관성을 강조한다고 할 수 있다. 역사적으로 볼때, 실천적 필요성이 과학적 연구를 촉진시켰다. 그러나 과학적 연구가 시작되어 어느궤도에 오르면 실천적 목표는 뒤로 물러나게 된다. 연구가 심화 확장되면, 독자적인 논리와 방법론, 타당성의 기준들이 발전된다. 미국 사회학의 발달을 보면 초기 사회학자들은 사회개혁에 관심을 가진 사람들이었다. 사회개혁이라는 실천적인 목표와 사회구조 및 행위를 설명하려는 이론화작업이 몇번 반복되면서 사회학은 이론성이 실천성보다 강화된 경우라 할수있다.

한국의 사회복지학은 상담기술과 원조방법에 치중한 사회사업학으로 시작하였고, 사회복지학으로 전환 이후에도 실천성이 강조되는 사회사어학의 비중이 작지않고, 현장이 있는 실천학문으로 인식되고있다. 실천위주의 학문은 상식적세계에서 타당성과 의미를 추구하고, 그때 그때 즉각적인 문제해결 방법과 처방을 중시하기 때문에, 자연히 연구결과도 단편적이 되기 쉽고, 따라서 학문으로서의 일관성이나 결합력을 갖기도 어려워진다. 사회사업학이나 사회복지학이 오래동안 "이론이 빈약한 학문", "매뉴얼적 성격의 학문", 심지어는 "내용이 없는 학문"이라는 비난을 받았던 것은 실천적인 측면을 불균형하게 강조했던것에 중요한 원인이 있다.

사회복지학은 실용적인 문제해결과 사회변동, 그리고 소외된 사람들의 보호와 유지를 중시한다 하지만, 실천과 응용도 논리적으로는 과학적 이해와 체계적 이

론을 전제해야하는 것이다. 다시말해서 실천성과 응용성도 과학적인 이론성에 기초해야하는 것이다. 처방은 현상의 정확한 설명과 진단을 토대로해야 하며, 현실에 대한 정확한 설명없이 내려지는 처방은 피상성과 공허성, 불모성을 면하기 어렵다. 이같은 이론과 실천의 상호의존성은 사회복지학의 정책론이나 임상론 양자에 모두 적용되어야한다. 사회사업 임상실천이 관련 전문직과의 경쟁해야한다면 더구나 이론체계에 기초한 임상이 되어야하며, 정책역시 마찬가지이다. 사회복지정책 개발은 이론적인 토대가 탄탄할때 그 효과를 기대할수 있는 것이다. 사회복지학은 상당기간동안 실천학문으로서의 정체성을 살려가야 할 것이며, 실천학문으로서의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해서는 실천방법론의 개발뿐 아니라, .연구방법론의 개발에도 진력하여야할 것이다.

임상과 정책의 분류에서 양자간의 위계적 관계를 주장하는 사람도 있다. 사회복지학의 핵심영역은 역시 임상이 정책이다 하는 논의가 그것이다. 현재로는 둘간의 위계적 관계를 선택하기보다는 선의의 경쟁관계에 두는 것이 발전적이라 생각되며, 임상과 정책간의 연계와 통합에 더 주의를 기울여야할것으로 보인다. 또한 임상 정책의 이분법의 보다 높은 수준에서의 정교화도 필요한 시점에 와있다.

4. 사회복지학의 보편성과 토착성

사회과학 분야에서 모든 국가 모든 문화에 적용될수있는 이론의 개발은 대단히 어렵다.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1960년대 중반부터 특히 미국의 50년대식 사회사업 이론과 한국의 사회현실간의 괴리현상에 눈뜨기 시작하였고 그후 사회사업학의 토착화, 사회복지학의 토착화는 중요한 과제로 남겨지게 되었다. 사회사업 실천에있어서도, 확대가족의 유대가 아직 강하게 남아있는 사회에서 가족의 해체를 전제로한 사회사업실천의 원칙은 적용되기 어렵다. 또한 개인주의보다 가족주의나 집단주의가 강하게 작용하고있는 사회에서 전적으로개인주의에 기초한 사회사업 실천원칙을 적용하려면 부작용이 생기게 마련이다. 빈곤이 만연한 사회에서 빈곤의 근원적인 해결책으로 빈곤한 개인의 성격적인 결함을 전제한 개별사회사업 접근이 타당한지, 권위주의적인 정치 리더쉽하에서, 철저한 자유민주주의 원칙에 입각한 사회행동 모델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 개발도상국의 현실이 복지선진국의 복지정책 모델의 정착을 허용할수있는지, 궁극적으로 한국적 사회복지모형이 어떤것인지, 이를 위한 독특한 연구방법은 어떤것인지, 사회복지학의 외래성 때문에 제기되는 구체적인 질문들이 아직도 대답을 기다리고 있다.

토착화란 외국의 사회복지나 사회사업이론이 우리실정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나 문제의 제기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우선 외국의 이론을 보다 정확하게 체계적으로 소화하고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로는 한국의 현실을 정확히 진단하고 파악해 내야한다. 특히 한국사회의 역사 문화적 특수성과 사회사업실천의 보편적인 가치들 간의 상호작용 패턴이 이해되어야 하며, 셋째, 외국의 이론과

실천모델들을 비교분석하고 한국의 현실의 이해와 교차시킬때 비로소 한국 사회복지학의 이론이 발굴될수있으며, 인내가 동반된 엄밀한 실험과 평가작업이 반복되어야 한다.

한국 사회복지 이론과 실천 모형의 고유성이 지적으로 정리되고 선후진 각국 사회복지학의 특수성이 이해될때 비로소 세계에 보편적인 사회복지학이 구축될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는 것이다. 한국의 사회복지학은 이미 언급한바와 같이 그 테두리의 구축에서 다른나라들로부터의 차별성이 인정되나, 그내용과 구조, 실천을 뒷받침하는 이론의 구축에서는 한국적 특수성이 반영되지 못하고있다. 사회복지학의 토착화 작업이야말로 한국 사회복지학의 정체성 확립에 결정적인 요인이 된다.

IV. 맺는말

한국의 사회복지학은 한국의 사회복지라는 제도적 틀을 만들면서 전문인력을 포함한 제도내의 구성요소를 적절히 구상해내는 이중의 사명을 부여받고있음을 앞서 지적하였다. 이러한 사회적 기대는 다른나라에서는 볼수없는 한국사회복지학의 특수성의 하나이다. 한국의 사회복지학은 영국의 사회행정이나 독일, 일본의 사회정책, 미국의 사회사업학처럼 어느한쪽에 확실한 비중을 두는 것이 아니라 어느쪽에도 쏠리지 않는 건강한 균형을 유지하여야 할것이다. 물론 그러한 균형을 유지하면서 실천학문, 종합학문으로서의 정체성을 고양하기는 결코 쉬운일이 아니다. 위에서 살펴본바와 같이 네개의 쟁점에서 한국사회복지학은 모두 심각한 어려움에 부딪치고있다. 그러나 이러한 비관적인 진단이 반드시 비관적인 미래의 전망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이러한 쟁점들은 이른바 응용사회과학의 모든분야에 적용될수있는 보편적인 잇슈들이며, 사회복지학의 짧은 역사와 사회복지학의 관심대상인 사회복지라는 실체의 저발전에도 불구하고, 한국 사회복지학은 이 모든 쟁점에서 건강한 문제의식을 보이고있다. 이러한 잇슈들을 둘러싼 활발한 논의와 문제제기가 바로 학문적 성숙의 동력인 것이다.

특히 서울대학을 포함한 다수의 주요 대학과 다수의 연구자들이 사회복지학 연구에 참여하고있다는 사실은 다른 나라들과 비교하여볼때, 사회복지학의 학문으로서의 발전가능성에 확실히 유리한 조건이라 할수 있다. 그러나 사회복지학이 광범위한 연구영역을 선언할수있게한 한국사회의 압축성장이라는 역사적 조건은 사회복지학의 일부분이어야할 영역을 전공으로하는 학문의 세분화 경향을 동시에 낳고있다. 예를 들어 사회복지학에서 전통적으로 중요한 아동복지, 노인복지, 장애인복지가 아동학과, 노인복지학과, 특수교육학과등으로 특화되는가하면, 정신보건간호학, 임상심리학, 상담심리학, 교육심리학, 교정학, 사회체육학등이 특화되어 임상사회사업과 경쟁하게되었다. 이러한 경향은 사회복지학의 통합적 정체성을 해치지 않으면서 사회복지학의 전공분야별 대외적인 경쟁력을 제고시키는 방안의 강구를 요청하고있다.

사회복지학의 학문으로서의 정체성의 확립은 임상과 정책을 통합하는 정연한 학문체계를 확립하려는 노력과 연구방법의 개발을 통한 실천의 이론화와 과학화의 추구로 비로소 시작될 것이며, 사회복지학의 정체성의 완성이란 있을수 없다. 다양한 변인들과의 길고 지속적인 상호작용 과정이어야 할것이다.